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어느 하버드 박사 출신 교수가 7 일만에 깨달았다는 수행법과 체험담들이 소개된 책에 눈길이 갔다.

일견컨대, 인도 고대 우파니샤드 수행자들의 범어(梵我一如) 사상을 구조로 '하나됨'의 경지에 접근하는 수행법으로 보였다.

도하는 기술적 장점이 돋보이는 것 같다. 다만 이 수행법과 그 체득이 얼마나 궁극적이며 부처님이나 선인들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이 따져보아야 할 터.

신비체험과 참선

달음과 같은 것이라 확신하며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과학적인 수행법'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생각으로 자아의 흔적과 불을 지우고 죽이는 '기술적 방식'을 통해 자아 관념을 효과적으로 없애 버릴 수 있다는 것.

이 수행법은 무아적 체험으로 유

허공처럼 열린마음
살얼음 밟듯 신중하게

현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물·느낌·마음 상태·법칙적 판단'의 연기적(緣起的) 경험 범주이며, 그것을 무명의 뿌리를 뜯어내 궁극적 해방과 평안, 실상(實相)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신다.

다양한 마음 공부법들이 지친 현대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통적 불교 언어가 아니라 해서 선언적으로 대할 일은 아니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근기별 수행지도 선지식 부족”

참물자의 길 참선⑨-수행점검 필요한데...

참선은 사찰·신행단체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련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성장에 비해 수행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근기나 수행 경력의 길고 짧음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참선 바람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알 수 있다. 대학시절부터 수행을 해오다 중단한 이진성(39·충북 충주시) 씨는 “수행방법의 옳고 그름을 속시원하게 풀어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만날 수 없었다”며 “이것이 요즘 참선 지도의 병폐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좌선작법만 배워선

명상수준 못 벗어나

수행체험 일기작성

선승 찾아다니기도

미국의 불교 열풍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미국 불교는 철저하게 대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를 통해 수행을 점검해주기도 한다. 위빠싸나, 아비타 등의 수행법이 최근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 이유도 지도자와 수행자가 하나가 돼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이다.

전통 선방에서조차 자상하게 점검해 주는 선지식의 부재를 호소하는 스님들도 있다.

성본(통국대 선학과 교수) 스님도 “좌선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5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항상 방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구책을 마련하는 불자들이 많다. 매일 매일 수행일기를 써 수시로 선승들에게 수행을 점검받고 있다는 선명화(40·서울 서초구 잠원동) 보살이 그런 경우다.

○올바른 참선지도는 작법이 아니라 수시로 수행의 진척 상태를 점검해주는 것이다. 사진은 백양사 무차선회에서 법거람 모습.

검반은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수행을 계속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는 말한다.

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주는 선지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옛 조사들이 나누던 법거람처럼 선지식들에게 수행을 체계적으로 점검받는 풍토가 살아나는 것만이 한국불교의 부흥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수행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서장’ 통한 선 공부 ⑤

증시랑에 대한 답서(3)

識의 움직임 통해 마음은 드러난다



김태원 부산대 강사·철학

면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보게 되면 그것이 그의 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마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눈이 본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듯이, 마음은 안다(識)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며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하지만, 현상이라는 모습을 벗어날 수 있다면 현상이라는 모습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면 모습이 아닌 순수한 생명변화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순수한 움직임에게 마음 혹은 자성(自性)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은 색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색의 다른 성질을 일컫는 말이다. 나(我)는 항상 식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식(識)이다.

임에 의하여 나타나는 식의 현상일 뿐이다. 즉 ‘식의 정지’ ‘절대 무’는 ‘식의 활동’ ‘절대 무’의 상대개념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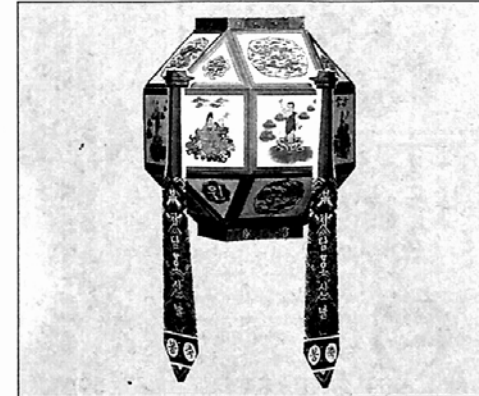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은 색을 통하여 파악될 수밖에 없다. 즉 현상(色) 속에서 현상의 모양에 막히지 않을 수만 있다면, 현상이 고정된 모양이 아니고 끊임 없는 변화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가 없다. 그러므로 방거사는 마음의 체험을 언급하여 ‘다만 있는 것(色)을 모두 비워버리기를 바랄 뿐, 없는 것(空)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의식(意識)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사용하여 식의 움직임을 확인시켜주면 된다. 할(作)이든 방(放)이든, 따귀를 치든 들 앞의 잣나무라고 말하든, 무엇이 의식시켜서 식의 움직임을 확인시키면 된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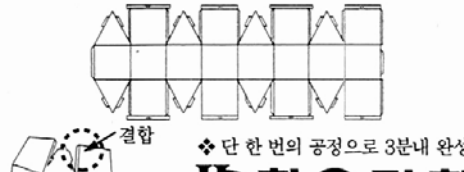


연등초벌용 8Cm 초벌용위에 연등완성품 연잎을 붙인 상태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칠공 구조에 남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 팔각등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 (02)467-1513 팩스: (016)552-9360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전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통과격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사찰 전구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 종류 : 3W, 5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할라멘트 6배(특 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탐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 5826-236 평생전화 (0502) 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 583-4023 FAX (032) 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 986-0277~8